

성별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생활 특성 및
여가생활 공간에 대한 선호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Behavior and Preference
for Leisure Environment of the Five-Day Workweek Company
Employees according to Gender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교 수 신 화 경**

Division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Sangmyung Univ.

Professor : Shin, Hwa-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behavior and preference for leisure environment of the five-day workweek company employees according to gender for developing leisure facilities in residential community planning.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he subjects of questionnaire survey were 338 staffs of 7 companies, who were living in apartment complex.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way of life about leisure, leisure necessity, actual condition and need of leisure spaces, and leisure satisfaction. Frequency, percentage, and mean, χ^2 -test, t-test,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erms of leisure time in weekend, the available leisure time distribution, and leisure cost, there were no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2) After five-day workweek, the men and women showed to increase their leisure activities and to engage in diverse forms of leisure. Also, they showed an increased desired ratios in participating in each leisure activities. 3) Leisure wa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unity of family and cultivate the sentiment. 4) Even though current main area for leisure were in their house, men were likely to change them from in the house to around and near their house. And they needed leisure facilities which was closer to their house. 5)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leisure faciliti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was low and there were no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This result implicated to improve and develop leisure space and facilities nea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promoting leisure behavior of both women and men. In particular it is necessity to create the good atmosphere of leisure facilities for women.

▲주요어(Key Words) : 여가생활(leisure behavior), 여가생활공간(leisure environment), 주5일 근무제(five-day workweek)

* 이 논문은 2006년도 재단법인 계당장학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신화경 (E-mail : hkshin@smu.ac.kr)

I. 서 론

삶의 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 의료, 치안 등과 함께 여가가 포함되고 있으나 국민 체감지표에 대한 여론 조사(동아일보, 2003) 결과,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나 여가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수치는 2001년 조사결과 62.2%의 부정적 평가보다는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주5일 근무제¹⁾ 확대에 의한 여가시간의 증가와 여가를 선호하는 새로운 노동의식을 형성하는 한국사회의 여가 가치관의 변화는(홍정우 등, 2003) 여가환경에 대한 요구를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의 확대 등 여가시간의 증가와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일상적인 기본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전망하고 있다.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하여 얼마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최항석·한상준, 2004)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여유를 즐기느냐 하는 문제는 한 사회의 삶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는 여가(leisure)를 단순히 남는 시간이나 자유시간(free time)이 아니라 자아실현(self actualization)과 재창조(re-creation)를 위한 시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여가내용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여가시간에 비해 활동내용이 아주 제한적이며 수동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특성을 보인다(신화경, 2005; 통계청, 2000, 2001). 특히 소극적이고 시간소모적인 여가행태 중 TV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 TV시청시간 측면으로 보면 전체 여가시간의 약 50%를 차지하며²⁾ 이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TV에 의한 여가 식민화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여가시간의 증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단면을 보여 준다. 인간의 행위에서 얻는 만족감은 집중하는 에너지와 몰입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데(김찬호, 2002) 이런 점에서

TV시청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는 매우 낮은 만족감을 준다. 낮은 만족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TV시청 등의 수동적인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타성으로 해석되고 있다(김찬호, 2002). 이러한 타성에서 벗어나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여가활동 참여로(김기영, 2001; 정영린, 1997) 여가시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의 개발 및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학습의 수반이 요구된다.

여가시간의 증가가 단순히 여가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원인은 여가활동의 장소나 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고(김현기, 2003; 김현주 등, 2002) 물리적 공간이 여가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문화적 행위에 큰 영향을 주는 잠재적 환경이 된다고 볼 때(이규인, 1993) 여가활동이라는 여가 수요창출을 위해 여가공간을 포함하는 여가공급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여가공급은 여가이용자 현재의 이용수준과 향후 이용희망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단순히 여가 공급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여가수요인 여가활동의 활성화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여가수요에 맞는 여가의 공급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가공간의 공급이 여가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계획된 여가공급이 요구되며 이 여가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시간 및 공간의 생활스타일이 일치하는 경우 더욱 여가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김광득, 1993).

주5일근무제 실시 이후 삶의 중심축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일에서 개인생활로 전환되고 있고(이장영 등, 2004) 정부에서도 여가시설의 최소기준 마련 및 생활권 내 다목적 복합 여가공간 확충 등 생활권 내에 여가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박영대, 2004) 있는 현 시점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가환경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회사 중심의 생활을 위주로 하는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가정으로 생활의 축이 변화할 때 요구되는 여가환경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사회에 대응되는 여가공급 관한 연구(고정민, 2003; 김수현 등, 2002; 허갑중, 2002; 이강욱·김희수, 2001)들은 대부분 관광지 개발 등 관광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등 거시적 이동패턴에 초점을 맞춘 자원중심형³⁾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상생활권 내에서의 여가 활동과 공간을 연결시킨 이용자 지향형 여가

1) 2003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주5일 근무제는 2007년 7월 1일 기점으로 상시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2) 여가활동의 내용을 보면 여가활용방법으로는 1993년까지는 수면 및 가사잡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TV 시청(41.2%), 수면 및 가사잡일(29.5%), 스포츠와 여행(11.4%)로 나타나 주로 수동적인 그리고 시간 소모형 여가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0). 여가시간으로는 1성인의 경우 하루 5.08시간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요일은 6시간 39분(남자 7시간 4분, 여자 5시간 43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3시간 16분을 대중매체를 이용하는데 할애(TV 시청 2시간 56분)하고 있다(통계청, 2001).

3) Clawson과 Knetsch는 여가공간의 유형을 이용자 지향형과 중간형, 자원 중심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원 중심형은 대부분 이용자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자연자원 등 뛰어난 자원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이용자 지향형은 이용자와 근거리 또는 시설이 이용하기 용이한 곳으로, 그리고 중간형은 이들 중간 정도의 한정된 거리에 뛰어난 자원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김광득, 1993: 184).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생활 특성과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여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일상생활권 내로 들어 올 수 있는 여가환경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성별은 전통적으로 여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참여 여가유형 뿐 아니라 참여 패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가 되므로(김광득, 1993) 회사중심에서 가정중심으로 생활의 축이 변화하는 직장인의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 특성과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선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여가생활특성을 파악하고 성별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직장인의 여가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성별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직장인의 여가활동 공간/시설의 위치체계를 파악하고 성별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직장인의 주거환경 내 여가생활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성별 차이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여가 시대를 대비하는 여가환경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한 집단의 특성은 주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현재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거나 곧 주5일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인 4개 금융기관과 3개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3년 9월 1일부터 2003년 9월 19일까지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배포 회수 하였다. 총 700부를 배포하여 497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402부를 통계에 사용하였으며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환경 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총 338부(남성 130, 여성 208)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선행연구(김현주 등, 2002; 신화경, 2000; 홍성희, 김성희, 2000; Iwasaki & Mannell, 1999; Happer, 1997)에서 사용된 문항을 중심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사전조사과정에서 문헌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된 여가활동 공간/시설에 대해 보완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모호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도구의 Cronbach Alpha⁴⁾는 .873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설문지의 설문도구의 내용은 일반사항, 여가생활특성(여가시간과 여가 비용, 여가를 함께하는 대상,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 성향 변화), 여가의 필요성, 여가생활 공간의 위치체계(여가시간을 주로 보내는 공간/시설, 여가활동공간/시설 선택 이유 및 여가활동 공간/시설의 위치), 및 주거환경 내 여가활동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가활동 공간/시설은 각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집과 회사 주 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⁵⁾. 주거지역사회내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므로 집과의 거리를 중심으로 위치체계를 파악하였다. 즉,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포함하며,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시간 개념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주5일근무제 직장인의 여가생활 특성 및 여가생활공간에 대한 선호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에 대한 차이 분석을 위해 t-test, χ^2 -test를 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주택소유형태 및 주택규모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30세미만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연령은 30~40세 미만이 48.5%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30세 미만이 72.7%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남녀 모두 대졸이상이 각각 65.1%, 74.6%로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300~400만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200만원 미만이 26.5%, 300~400만원 미만이 25.5%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현재 거주형태는 자가비율이 62.3%로 가장 많았으며 남녀

4) 설문도구 내용 중 여가의 필요성 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임.

5) 여가가 일상생활의 주요한 영역이므로(김문경, 1993) 주5일근무자의 일상생활권인 집과 회사 두 축을 중심으로 집, 집 근처(동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회사, 회사에서 가까운 곳, 기타 등 6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		여		계		X ²
		f	%	f	%	f	%	
연 령	30세 미만	29	22.3	149	72.7	178	53.1	87.477***
	30~40세	63	48.5	46	22.4	109	32.5	
	40세 이상	38	29.2	10	4.9	48	14.3	
	계	130	100.0	205	100.0	335	100.0	
학 령	대졸 미만	31	24.1	44	22.8	75	23.3	9.984n.s.
	대졸	84	65.1	144	74.6	228	70.8	
	대학원 졸	14	10.9	5	2.6	19	5.9	
	계	129	100.0	193	100.0	322	100.0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7	21.1	54	26.5	81	24.4	2.698n.s.
	200~300만원 미만	27	21.1	37	18.1	64	19.3	
	300~400만원 미만	38	29.7	52	25.5	90	27.1	
	400~500만원 미만	20	15.6	31	15.2	51	15.4	
	500~600만원 미만	11	8.6	17	8.3	28	8.4	
	600만원 이상	5	3.9	13	6.4	18	5.4	
	계	128	100.0	204	100.0	332	100.0	
주택소유 형태	자가	76	59.4	131	64.2	207	62.3	1.679n.s.
	임대	47	36.7	67	32.8	114	34.3	
	사택	3	2.3	2	1.0	5	1.5	
	기타	2	1.6	4	2.0	6	1.8	
	계	128	100.0	204	100.0	332	100.0	
주택규모	성별구분	사례 수	평균	S.D	t			
	남	121	27.78	9.59	0.365n.s.			
여	173	27.35	10.18					

***P≤0.001, N.S.: Not Significant

모두 자가 비율이 각각 59.4%, 64.2%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남성은 평균 27.78평, 여성은 27.35평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남녀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 -test와 t-test한 결과, 연령은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특성은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가생활특성

여가생활특성으로는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함께하고 싶은 대상 및 여가성향 변화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1) 여가시간

조사대상자의 여가시간을 주중(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주중 여가시간은 평균 3.01시간이었으며 주말에는 평균 13.51시간의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t-test한 결과, 주중 여가시간은 남성은 평균 2.74시간, 여성은 3.25시간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나 주말 여가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주중 여가시간의 분포는 저녁에 분포하는 경우가 5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오후가 17.7%로 나타났다. 남녀 여가시간 분포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χ^2 -test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저녁시간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여가비용

조사대상의 여가비용은 최소 0원에서부터 최대 200만원까지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개인여가비용은 평균 212,100원, 가족여가비용은 평균 319,000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개인여가비용은 평균 235,200원이었고 여성 개인의 여가비용은 207,500원이었다. 가족여가비용은 남성의 경우 평균 353,900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309,800원으로 나타났다. 남녀 여가비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한 결과, 남녀 집단간 개인여가비용 및 가족 여가 비용에는

<표 2> 여가시간

여가시간	성별	평균(단위 : 시간)	S.D	t
주중 여가시간	남	2.74	1.45	-2.268*
	여	3.25	2.24	
	전체	3.01	3.56	
주말 여가시간	남	13.52	10.63	-0.263n.s.
	여	13.83	10.06	
	전체	13.51	10.58	

*P≤0.05, N.S. : Not Significant

<표 3> 여가시간분포

시간분포	남		여		계		X ²
	f	%	f	%	f	%	
새벽		1.6	1	0.5	3	0.9	10.141n.s.
오전		4.7	4	2.0	10	3.0	
오후	20	15.5	39	19.1	59	17.7	
저녁	72	55.8	125	61.3	197	59.2	
대중없음(수시로)	29	22.6	35	17.2	64	19.2	

N.S. : Not Significant

<표 4> 여가비용

단위 : 만원

	성별	평균	S.D	t
개인여가비용	남	23.52	28.84	1.019n.s.
	여	20.75	20.39	
	전체	21.21	22.50	
가족여가비용	남	35.39	40.45	0.943n.s.
	여	30.98	37.92	
	전체	31.90	37.43	

N.S. : Not Significant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활동을 함께하는/함께하고 싶은 대상

조사대상 남성들이 현재 주중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응답결과, '가족과 함께'가 4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친구와 함께'(28.3%), '나혼자'(20.2%), '연인(이성친구)와 함께'(1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 여가를 함께 하는 대상에 대한 응답결과 주중 응답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가 5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친구와 함께'(23.5%), '연인(이성친구)와 함께'(21.1%),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끼리만'(7.7%)순으로 나타났다.

주중이나 주말 모두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또한 주말은 주중보다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주중의 경우 혼자 여가를 보낸다는 응답이 20.2%였던 것에 반해 주말의 경우 4.9%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에도 주중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비율이 5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친구와 함께'(24.7%)로 나타났다. 주말여가의 경우 '가족과 함께'가 59.1%로 가장 많이 선호 하였고 그 다음 '이성친구와 함께'(24.7%), '친구와 함께'(18.1%),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끼리만'(5.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앞으로 여가활동을 함께하고 싶은 대상

<표 5> 여가활동을 함께하는/함께하고 싶은 대상

N=338 (단위:%)

여가를 함께 하는 대상	현 재		선 호	
	주 중	주 말	주 중	주 말
나 혼자	13.1	2.3	12.3	6.9
가족과 함께	63.1	66.9	64.6	70.0
친구와 함께	22.3	20.0	13.1	9.2
연인(이성친구)와 함께	3.1	6.9	11.5	13.8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끼리만	5.4	5.4	5.4	3.1
기타	1.5	3.1	3.1	4.6

<표 6>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성향 변화

여가를 보내는 성향	남(n=130)		여(n=208)		계	
	f	%	f	%	f	%
여가활동 종류의 변화는 없으나 전에 하던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하게 될 것이다)	66	52.4	102	51.3	168	51.7
여가활동 종류의 변화는 없으나 전에 하던 여가활동을 더 적게 하게 되었다(줄어 들 것이다)	4	3.2	4	2.0	8	2.5
이전에 하던 여가활동보다 종류가 다양해졌다(다양해질 것이다)	41	32.5	64	32.2	105	32.3
이전에 하던 여가활동보다 종류가 적어졌다(적어질 것이다)	1	0.8	2	1.0	3	0.9
변화없다(변화가 없을 것이다)	12	9.5	26	13.1	38	11.7
기 타	2	1.6	1	0.5	3	0.9

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선호 모두 주중 보다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가성향변화

조사대상이 현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근시일내 주5일 근무제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들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 성향의 변화 및 예상 변화 성향을 조사한 결과, '여가활동 종류의 변화는 없으나 전에 하던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하게 될 것이다)'는 비율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이전에 하던 여가활동보다 종류가 다양해졌다(다양해질 것이다)'가 32.3%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성향은 남녀 각각 '여가활동 종류의 변화는 없으나 전에 하던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하게 될 것이다)'는 52.4%와 51.3%로 가장 많았고 '이전에 하던 여가활동보다 종류가 다양해졌다(다양해질 것이다)'가 각각 32.5%와 32.3%로 나타났으며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유의적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한

여가활동의 다양성 및 여가활동참여시간의 증가라는 변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3. 여가활동의 필요성 인식

여가활동의 필요성 측정을 위해 여가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15개 문항을 '매우 필요하다' 5점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의 기분 전환 및 휴식을 위해서'(4.28), '단조로운 생활의 탈피를 위해서'(4.25), '가족 상호간의 이해와 화목 증진을 위해'(4.23), '은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위해'(4.23) 순으로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필요성의 내재적 차원을 각 항목의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r components analysis : PCA)에 의해 베리맥스(Varimax)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수의 결정은 아이겐값(eigenvalue)이 1.0이상인 것만을 선택하였고, 각 요인 부하량이 0.5이상인 것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15개 중 14개의 변수가 추출되었으며

<표 7> 여가활동의 필요성

항 목	평 균	S.D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4.45	0.62
가족의 기분 전환 및 휴식을 위해	4.28	0.71
단조로운 생활의 탈피를 위해서	4.25	0.70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위해	4.23	0.71
가족 상호간의 이해와 화목 증진을 위해	4.23	0.70
개인/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4.20	0.72
친목 도모를 위해서	4.19	0.64
신체의 피로해소를 위해서	4.14	0.78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4.13	0.67
일의 능률을 위해서	4.09	0.77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4.07	0.71
개인/가족의 인성교육(정서함양)을 위해	3.96	0.78
신체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3.95	0.76
창조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76	0.85
세대차이, 소외감, 허무감 극복하기	3.64	0.90

<표 8> 여가활동 필요성의 요인분석

요인명	문 항	eigen value	설명변량
가족 결속력	가족 상호간의 이해와 화목 증진을 위해	2.724	19.459
	가족의 기분 전환 및 휴식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위해		
건강 증진 및 일의 능률향상	신체의 피로해소를 위해	2.527	18.051
	신체의 기능 향상을 위해		
	개인/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의 능률을 위해		
다양한 경험 및 인성교육 함양	창조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221	15.864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가족의 인성교육(정신함양)을 위해		
	세대차이, 소외감,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		
친목 도모 및 활력 증진	활기찬 생활을 위해	1.801	12.864
	단조로운 생활의 탈피를 위해		
	친목 도모를 위해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때 설명량은 66.237%였다. 각 요인의 아이겐값과 설명변량은 <표 8>과 같다. 요인모델에서 개별요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은 최고 0.844에서 최저 0.426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0.4이하는

낮다고 보는 일반적 견해에 비추어볼 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요인에서 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요인 부하량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요인의 아이겐값은 2.724로 총변량의 19.459%를 설명한다. 제1요인에는 가족상호간의 이해와 화목증진을 위해,

<표 9> 여가활동 필요성의 각 요인별 평균

요인명	평균	S.D	성별	평균	S.D	t
가족 결속력	4.23	.63	남	4.23	0.662	-0.673 ^{ns}
			여	4.28	0.603	
건강 증진 및 일의 능률향상	4.08	.60	남	4.04	0.648	-0.968 ^{ns}
			여	4.11	0.535	
다양한 경험 및 인성교육 함양	3.85	.61	남	3.74	0.623	-2.535*
			여	3.92	0.599	
친목 도모 및 활력 증진	4.29	.49	남	4.18	0.458	-3.010*
			여	4.34	0.481	

* P<0.05, N.S. : Not Significant

가족의 기분 전환 및 휴식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으로 제1요인은 '가족결속력'이라고 명명하였다.

제2요인의 아이젠값은 2.527로 총변량의 18.051%를 설명한다. 제2요인에는 신체의 피로해소를 위해서, 신체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개인/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으로 제2요인은 '건강 증진 및 일의 능률향상'이라고 명명하였다.

제3요인의 아이젠값은 2.221로 총변량의 15.864%를 설명한다. 제3요인에는 창조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가족의 인성교육(정심함양)을 위해, 세대차이, 소외감,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으로 제3요인은 '다양한 경험 및 인성교육 함양'이라고 명명하였다.

제4요인의 아이젠값은 1.801로 총변량의 12.864%를 설명한다. 제4요인에는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단조로운 생활의 탈피를 위해, 친목도모를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으로 제4요인은 '친목 도모 및 활력 증진'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개인 여가활동의 필요성은 '가족결속력', '건강증진 및 일의 능률향상', '다양한 경험 및 인성교육 함양', '친목도모 및 활력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여가활동 필요성을 각 요인별로 보면, '친목도모 및 활력 증진'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결속력(4.23)', '건강 증진 및 일의 능률향상(4.08)', '다양한 경험 및 인성교육 함양(3.85)' 순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활기찬 생활과 친목 도모와 가족의 휴식과 화목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필요성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한 결과 '가족결속력'과 '건강증진 및 일의 능률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다양한 경험 및 인성교육 함양', 과 '친목도모 및 활력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낮게 여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가생활 공간의 위치체계

여가생활 공간의 위치체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가시간을 주로 보내는 공간/시설, 여가활동 공간/시설 선택 이유 및 여가활동 공간/시설의 위치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여가시간을 주로 보내는 공간/시설

여가시간을 주로 보내는 공간/시설을 집과 회사 두 축을 중심으로 '집', '집 근처(동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회사', '회사에서 가까운 곳' '기타' 등 6가지로 구분하여 현재 여가시간을 주로 보내는 곳과 앞으로 보내고 싶은 장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주중에 여가를 보내는 장소로는 '집에서'가 5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집 근처(동네)에서'(39.2%),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6.9%), '회사에서 가까운 곳'(6.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으로 여가시간을 주로 보내고 싶은 장소로는 '집 근처(동네)에서'가 56.2%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가 30.8%로 나타나 현재 보다는 앞으로 주중의 여가활동은 집 근처에서 하고자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여가시간을 주로 보내는 장소가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χ^2 -test한 결과 남녀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을 주로 보내는 장소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여가를 보내는 공간/시설로는 현재 '집 근처(동네)'가 5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23.1%)과 '집에서'(23.1%)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은 공간/시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표 10>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시설

N=338 (단위:%)

여가 공간/시설	주 중		주 말	
	현 재	선 호	현 재	선 호
집에서	53.1	30.8	23.1	15.4
집 근처(동네)에서	39.2	56.2	55.4	42.3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6.9	11.5	23.1	43.1
회사에서	1.5	0.8	0.0	0.0
회사에서 가까운 곳	6.2	6.2	0.0	0.8
기 타	2.3	3.1	5.4	3.8

<표 11> 여가활동 공간/시설 선택 이유

(단위:%)

여가장소 선택이유 남(n=130)여(n=203)	현 재		선 호	
	남	여	남	여
여가시설 이용자의 동질성	19.2	17.0	9.2	7.8
시설이 좋아서	6.9	9.7	8.5	12.6
가격이 저렴해서	5.4	9.2	9.2	9.2
근거리 이용이 가능해서	41.5	32.5	46.9	45.1
분위기가 좋아서*	7.7	9.2	6.2	16.0
교통이 편리해서	12.3	15.5	16.2	15.0
주차시설이 편리해서	4.6	3.4	3.1	3.9
기 타	18.5	18.8	13.1	12.1

* 선호하는 여가장소 선택이유에 대해 χ^2 -test한 결과 $p < 0.05$ 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43.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집 근처(동네)'가 42.3%로 나타났으며 '집 근처(동네)'에 대한 선호비율이 현재에 비해 적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여가의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앞으로 여가시간을 주로 보내고 싶은 공간/시설이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χ^2 -test한 결과 남녀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을 주로 보내고 싶은 공간/시설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가활동 공간/시설 선택 이유

현재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시설의 선택이유로는 '근거리 이용의 가능성'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가시설 이용자의 동질성'이 19.2%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공간/시설 선택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근거리 이용이 가능해서'가 4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해서'(16.2%) 여가활동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가시간을 보내

고자 하는 장소 선택이유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분위기가 좋아서' 여가장소로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의 선택이유에 대해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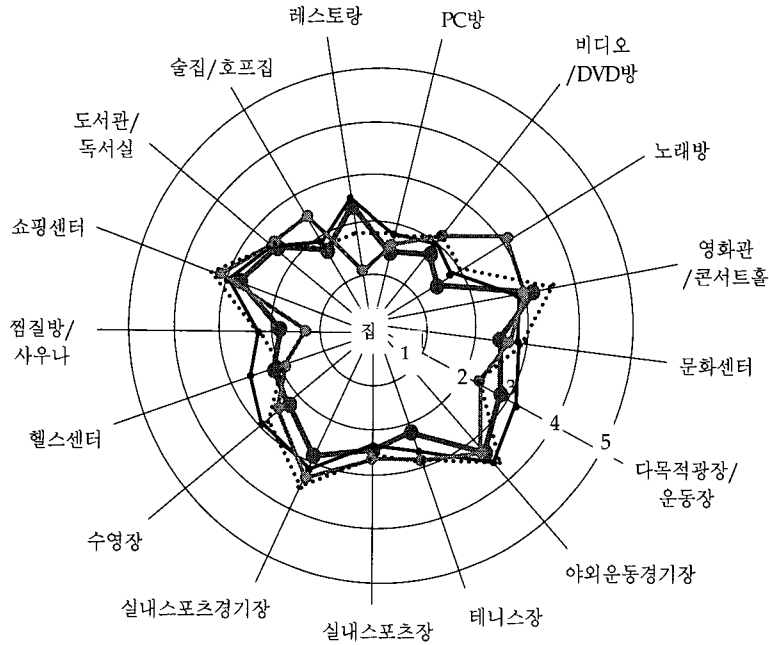
3) 여가활동 공간/시설의 위치

여가활동 공간/시설에 대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신화경, 2005)결과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선호하는 여가활동이 20%이상인 활동 중 공간/시설을 필요로 하는 여가 공간/시설을 대상으로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집에서 30분 이내', '집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이상' 등 5단계의 거리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남녀 여가활동공간/시설의 현재 이용하는 위치와 앞으로 선호하는 위치를 정리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보다 전반적으로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다목적 광장/운동장, 레스토랑, 찜질방/사우나 및 헬스센터 등의

<표 12> 주거환경 내 여가활동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

	성 별	평 균	S.D	t
주거환경(동네)의 여가활동 공간/시설에 관한 만족도	남	2.51	0.874	-2.750n.s.
	여	2.77	0.856	

N.S. : Not Significant



1.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4.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2. 집에서 걸어서 30분 이내	5.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이상
3. 집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	
— 현재 이용하는 여가활동공간/시설 위치(남)	
..... 현재 이용하는 여가활동공간/시설 위치(여)	
— 선호하는 여가활동공간/시설 위치(남)	
— 선호하는 여가활동공간/시설 위치(여)	

<그림 1> 여가활동 공간/시설의 위치

여가활동 공간/시설 이외에는 여성보다 가까이 있는 여가 활동 공간/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술집/호프집과 노래방의 선호 위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치보다 먼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여가활동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 내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를 5점에서 '매우 불만족하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주거환경 내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67점이며 남성의 경우 평균

2.51점, 여성은 2.77점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 내 여가활동 공간/시설에 대해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보통이하의 낮은 편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가생활의 비중이 커지는 미래 사회에서 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가생활에 대응되는 주거지역 내 여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의 필요성은 가족의 결속력과, 건강증진 및 일의 능률향상, 다양한 경험 및 인성교육 함양, 친목도모 및 활력 증진 요인으로 요약되며 이중 가족의 결속력을 위해서 여가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가족의 결속을 위한 가족여가의 필요성이 남녀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적 공동체 의식과 세대간 불신 극복, 그리고 건전문화 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 중심 여가 문화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여가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응되는 시설의 공급이 더욱 요구된다.

둘째,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여가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5일근무자들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기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하거나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주5일근무제의 확대에 의한 여가시대를 대비하여 증가되는 여가시간이 생활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여가를 수용·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및 방향제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주거환경 내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중간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내 여가시설 개발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남녀 모두 여가활동 장소가 현재보다는 더욱 집 근처로 위치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근거로 보면 현재 보다는 주거환경 내에서 여가활동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고려가 더욱 요구된다.

넷째, 여가활동에 대응되는 여가공간의 위치 체계를 보면 현재의 여가활동은 주로 집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 선호하는 여가활동공간은 집을 중심축으로 여가 생활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지만 집보다는 집 근처에서의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근처/동네에서 여가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근거리 이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주거환경 내의 여가시설 개발이 여가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특히 주중에 집 근처의 동네(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증가는 앞으로의 주거환경 계획 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에 대한 배려가 더 한층 고려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여가활동 공간/시설 중 야외운동 경기장, 영화관/콘서트장 등을 제외한 필요 여가시설들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위치하길 선호하였으며 여가활동 공간/시설의 선호 위치는 현재 이용하는 여가활동 공간/시설의 위치보다

집 쪽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래방, 수영장, 실내스포츠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및 술집/호프집 등의 시설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이들 시설이 집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있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여가공급을 계획할 때 이와 같은 시설을 주거환경과 근거리에 계획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주중 여가시간, 여가활동장소 선택 이유 중 '분위기'에 대한 고려정도 및 일부 여가활동 공간/시설 위치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한 내용에 있어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성별이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일의 소요 시간, 여가에 대한 흥미 등 여가유형과 여가에 참여하는 패턴에 영향을 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배경 및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전통적으로 여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별 요인에 따른 분석만을 하였으나 앞으로 성별 이외의 여가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요인 중 여가 선호에서 성별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접 수 일 : 2007년 05월 11일
- 심 사 일 : 2007년 05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6월 08일

【참 고 문 헌】

고정민(2003). 여가문화와 여가산업. **한국여가문화학회 연차 학술대회논문집**, 97-104.

김광득(1993). **현대여가론-이론과 실제**. 백산출판사.

김기영(2001). 도시주부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와 여가, 가족 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0(4), 361-370.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김수현 외 9인(2002).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찬호(2002). 문화를 생산하는 학습공동체를 위하여. **여가 문화학회 제1회 여가·문화 포럼**, 5-13.

김현주·이창형·박소라(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 문화 이용 행태변화. **여가 문화학회 제1회 여가·문화 포럼**, 24-37.

김현기(2003).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여가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 학회지**, 25.

박영대(2004). 여가생활과 문화정책. **여가문화학회 연차학술**

- 대회논문집, 17-31.
- 신화경(2000). 여가생활패턴과 여가공간의 위치구조. **상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7호, 1-13.
- 신화경(2005). 지역사회 여가시설 개발을 위한 주5일 근무자들의 여가행태 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81-190.
- 이강욱·김희수(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한국관광연구원.
- 이규인(1993). 공동주택단지의 공간구조의 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장영 외 12인(2004). 여가. 일신사.
- 정영린(1997).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항석·한준상(2004). 주5일제와 여가교육. **한국여가문화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59-69.
- 통계청(2000). 통계로 보는 한국인의 모습.
- 통계청(2001).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 홍정우·최순화·이민훈(2003). 한국사회의 가치관 급변과 혼동. 삼성경제연구소.
- 홍성희·김성희(2000).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이용실태 분석 :중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97-114.
- 허갑중(2002).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관광 육성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동아일보(2001). 국민체감지표 2차 여론조사. 2001. 1. 10.
- 동아일보(2003). 우리 사회 살기 좋지 않다. 2003. 2. 24.
- Happer, William(1997). The Future of Leisure; Making Leisure Work. *Leisure Studies*, 16, 189-198.
- Iwasaki, Yoshi & Roger C. Mannell(1999). Situational and Personality Influences on Intrinsically Motivated Leisure Behavior. *Leisure Sciences*, 21, 287-306.